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1월 2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6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 함진아 -

4년 전, 저의 첫째 아이가 독감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독감을 앓고 난 후 2주쯤 지나서 아이를 씻기는데 목 한쪽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며칠 사이 혹이 더 커지고 또 그 옆에 작은 혹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대학병원에 가보라며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6살이던 어린 아이에게 전신 수면마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혹이 검사결과 혹시라도 양성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매일 울면서 날을 지새웠습니다. 수면마취를 위해서는 수술 일주일 전부터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면역력이 약한 첫째가 자꾸 감기에 걸려 수술 일정이 3번이나 뒤로 미뤄졌습니다.

처음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며 살아왔나 하는 자책감과 함께,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마음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하루 온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듯, 이번에는 둘째 아이 병치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의 목에 생긴 혹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중에 둘째의 사타구니에서 또 혹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곧장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탈장이라며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아이의 목에 난 혹의 수술이 미루어진 상황에서, 세 돌이 채 되지 않은 둘째 아이를 전신마취 시키고 그 자그만 몸에 칼을 대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친정어머니가 ‘이런 때일수록 엄마

인 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면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북돋워주는 성경구절, 신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관한 성경말씀을 눈에 잘 보이는 곳마다 붙여 놓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꼭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첫째의 수술이 8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7월에 둘째 아이가 먼저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둘째는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이라서 예약한 날짜 그대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아이까지 있어서 돌보느라 두 아이가 차례로 병원에 갈 때에 함께 가지 못할 때도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 “동생아, 병원 가지마!”라고 말하는 언니에게 “안 돼! 나 수술하러 가야 돼”라고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앞장서서 집을 나서는 둘째의 모습을 보니 한없이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둘째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첫째의 수술날짜가 다가와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거짓말처럼 첫째의 목에 나 있던 혹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몇 달 동안 아이들의 질환과 수술로 인해 가슴앓이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보통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인생은, 사랑은 시든 게 아니라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시인의 ‘첫사랑’이란 시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평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며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저를 바라보시며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자라고 하지만 부모님께 등 떠밀려 교회를 나오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저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에 가라고 강권하는 어머니에게 반감을 가지고 반항도 했었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던 중학생 시절에, 제가 교회 수련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자 어머니는 저 대신 짐을 싸고 저를 택시에 태워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먼발치에서 손 흔들며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어머니가 극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밉고 싫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와 보살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칠고 모난 돌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듯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조금씩 저의 모습이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셨던 성경말씀과 찬송가의 가사들이 제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때마다 옆에서 어머니가 그런 저를 바르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성경구절을 암송해보라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천천히 그런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예전의 저는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세상을 탓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인생에 다가오는 풍파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저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할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에서 오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갖게 해주시기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맡겨 주신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 주신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의 헌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직접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알게 되고 감사의 마음이 커지게 되듯이 자녀 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 모를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여전히 저는 종종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이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는 즉시 권능의 손을 내밀어 꼭 붙들어 주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종류의 인생 풍파를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결국에는 저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4년 이 새해에는 송구영신예배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써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5단원 : 예수님의 가르침) (제32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

- 본문 : 누가복음 10:25-37
- 요절 :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
- 찬송 : 369장(새찬송가 218장), 416장(새찬송가 294장)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다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웃이 누구이며 또 참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소매치기에게 지갑을 날치기당한 여인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체하고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해를 입지나 않을까 하는 이해타산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가장 선한 척, 경건한 척 행세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평소의 언행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1. 강도 만난 사람

먼저 비유에 나오는 장소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으로 해발 아래 약 300미터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85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험하며 게다가 그 길은 좁고 돌이 많아 울퉁불퉁 하였고 강도들이 습격하기 좋은 좁은 길이 많았습니다.

3. 참된 이웃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운 채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차가운 기운이 그의 상처입은 육체에 고통을 더했습니다. 간간히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으며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고토에 남은 백성과 그곳에 이주해온 이방인 사이에서 혼혈된 자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두 민족은 서로를 적대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우리 주위에는 이 나그네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오해받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강도질 당한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인은 레위인이나 유대인 만큼 율법을 공부한 적이 없었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종교적으로도 배척 받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성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었는지 상관치 않고 자기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두움에 속하여 이웃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치 않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맨 다음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또한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지불하며 보살펴줄 것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하며 떠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평소에 감정이 나쁜 유대인이라고 지나쳐버리지 않고 자기의 힘과 정성과 재물을 바쳐서 진실된 사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2.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

레위인은 12 지파중에서 성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다시 성별된 아론의 자손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존중하고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종교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는 고상한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나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 5:46-47)고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행을 당한 이웃을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것은 차가운 이기심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나만 잘살고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불쌍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사랑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 율법사를 향하여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답변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형식과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병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신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